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김주용(金朱容)* · 이지연(李之漣)**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연구와 측정 척도를 참고하여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고 문항을 작성하여 인천·경기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비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비검사와 본 검사 자료 수집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단일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과 모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는 선행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은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는 선행 변인으로 작용하며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이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는데 매개 변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 낙관성,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I. 서론

그동안 심리학의 주요 과제는 정신 질환의 치료,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재능의 발견과 육성 등 세 가지였으나 정신병리 과정

*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인천대학교 교수

과 치료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비평이 Scheier, Carver 그리고 Seligman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긍정심리학이 대두되었고 그 연구 결과 정신 건강을 위해 가장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완충장치인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 몰입, 행복, 희망, 영성, 용서등과 같은 인간의 강점들을 찾아내기에 이르러 긍정심리학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골몰해 있던 심리학을 삶에서 가장 좋은 특성들을 개발하는 데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Seligman, 1991).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낙관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 연구들에서(Scheier & Carver, 1992; Chang, 1998; Chang & Sanna, 2001; Symister & Friend, 2003)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낙관적인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예를 들면,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감기에 덜 걸렸고(Peterson, 1988) 관상동맥 이식수술 후에 회복 속도가 빨랐으며 심장 마비와 암 진단 이후의 생존율이 높았다(Scheier & Carver, 1992). 또한 운동, 식사 조절,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 등과 같은 '건강한' 습관들과도 관련이 있었다(Seligman, 1991). 낙관적인 사람은 신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여 힘든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느끼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eier, Carver, & Bridges, 1994). 예를 들면, 낙관적인 산모는 비관적인 산모에 비해 출산 전, 후 모두 낮은 우울을 보였고 심혈관 수술 환자들 중 낙관적인 환자가 수술 전에 저항감, 우울감을 덜 나타냈으며 수술 후에는 행복감, 안도감, 만족감을 더 보였을 뿐 아니라 수술 5년 후에도 높은 주관적 행복감과 더 나은 삶을 느끼고 있었다(Scheier & Carver, 1992). Chang(1998)의 연구에서 역시 낙관적인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우울 뿐 아니라 적개심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았다.

낙관성은 일반적으로 현실과 미래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며 자신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성향적 낙관성(Scheier & Carver, 1985)과 귀인적 낙관성(Seligman, 1978)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성향적(dispositional) 낙관성은 선천적 또는 기질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한다(Carver & Gaines, 1987; Scheier & Carver, 1992). 이것은 사람들이 갖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하는(Scheier & Carver, 1992) 것으로 어떤 목표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비록 진행이 더디거나 힘들어도 역경을 극복하고자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나 기대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여기면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과 목표를 분리해서 생각하여 목표로부터 마음과 행동을 놔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상의 구별은 결과와도 연결되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가 성취 가능하다고 믿을 때 희망차고 밝은 기분으로 긍정적인 기대 위에서 이성애 의

존하여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기대들은 행동상의 불성실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좋지 않으며 이것은 다시 수치심, 분노, 원망과 같은 감정들을 일으켜 계속적으로 목표에 따른 다른 행동들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 이론에 따라 Scheier 등은 낙관적인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낙관성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설명양식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귀인적 낙관성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지각과 해석에 의해 현재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스스로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낙관성과 비관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Peterson, 1999; Seligman, 1991) 동물실험에서 발견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의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전기충격을 받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들이게 된다. 피할 수 없는 혐오자극으로 인한 심리적 공황의 경험은 행동의 동기를 사라지게 하며 새로운 학습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Seligman은 이 원리가 인간의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자기가 만난 상황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Seligman과 그의 동료들은 학습된 무기력 모델을 재구성한 귀인이론으로 낙관성에 접근하여 개인의 고유한 귀인 스타일로 낙관성을 정의 내린다(Seligman, 1995). 즉 과거 부정적 사건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사람들의 감정과 그에 따르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비관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internal) 비난하고 지속적으로(stable) 전반적인 상황에(global)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 외부적 요인(external)에 의해 일시적으로(unstable) 특정한 상황(specific)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반면, 낙관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타인의 잘못일수 있고(external) 일시적으로(unstable) 이번 일에만(specific)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는 것이다(Seligman, 1995). 다시 말해 귀인성(Personal: internal-external), 지속성(Permanent: stable-unstable), 파급성(Pervasive : global-specific)의 세 가지 차원에서 자신이 겪은 통제 불능 경험을 어떻게 귀인 하는가에 따라 낙관성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Seligman(1995)은 낙관성을 “자신이 겪는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며 역경에 맞서서 견뎌내고 다음 행동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는 단지 행복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 부딪히고 실패했을 때 ‘부정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조정해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긍정적이고 희망적 자세를 가지고 파괴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는 태도를 바꾸어나가는 것을 통해 낙관적 사고를 습득하고 자세를 확립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낙관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의 대표적 공통점은 ‘기대’이다. 성향적 낙관성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믿는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귀인적 낙관성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미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반면, 대표적 차이점은 성향적 낙관성이 개인의 타고난 선천적인 경향성이라면(Scheier & Carver, 1993), 귀인적 낙관성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기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비관적인 사람도 낙관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Seligman, 1995).

낙관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각각의 척도를 살펴보면, Scheier와 Carver(1985)는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LOT(the Life Orientation Test)를 개발하였고 현재는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가 재구성한 LOT-R(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이 사용되고 있다. LOT-R은 성향적 낙관성을 낙관성과 비관성에 대해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6개의 문항만이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4개의 문항은 참여자가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가짜문항(Filler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은 다시 3개의 긍정적 진술문항과 3개의 부정적 진술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OT-R은 5점 Likert 척도로서 0에서 4중 하나에 응답하게 되어있고(0 : 매우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 총점범위는 0점에서 24점이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LOT와 LOT-R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차원인가 또는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해야하는가의 논쟁(Scheier & Carver, 1985; Mehrabian & Ljunggren, 1997;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 & Vickers, 1992)이 있는데 Scheier와 Carver(1985)는 원래 두 가지 요인(긍정적 진술 문항, 부정적 진술문항)을 고려하면서 LOT를 구성하였으나, 이 두 요인의 상호상관이 $-.64$ 로 높기 때문에 두 요인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문항 어휘(item wording)에서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단일 측정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비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Mehrabian와 Ljunggren(1997)은 LOT-R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관성 요인 하나만을 확인하였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Scheier와 Carver(1985)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낙관성과 비관성이 양극적 단일 차원을 이룬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반박되었는데 연구방법에 따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중년기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안녕이나 신체적 건강 변인들과 맺는 상관관계의 양상이 서로 다르고 독립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Mroczek, Shapiro, Aldwin, Ozer, & Bosse, 1993; Robinson-Whelen, Kim, MacCallum, & Kiecolt-Glaser, 1997). 둘째, 비관성의 영향력이 통제된 낙관성과 낙관성의 영향력이 통제된 비관성은 각각 삶의 만족도와 우울 증상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낙관성과 비관성 각각이 심리적 안녕과 건강에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mith, Pope, Rhodewalt, & Poulton, 1989; 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모형보다 2-요인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아동을 제외한 청소년, 대학생, 중년기 성인 및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Chang et al., 1997; Robinson-Whelen et al., 1997; Creed, Patton, & Bartrum, 2002). 마지막으로, 낙관성 요인과 비관성 요인의 상호상관에 대한 연구결과 두 요인간의 상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Chang et al., 1997; Robinson-Whelen et al., 1997; Creed et al., 2002). 이러한 연구 동향에 의해 최근 들어 두 차원은 각각 독립적이며 여러 준거변인들과 이루는 상관관계의 양상이 다르다는 2-요인 모형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에 따라 낙관성과 비관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hang,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7)는 Extended Life Orientation Test(E-LOT)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E-LOT는 낙관성과 비관성이 독립된 두 개의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작된 측정도구로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낙관성 하위척도는 6개 문항, 비관성 하위척도가 9개 문항, 가짜문항(filler item)이 5개이며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LOT-R이 성인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LOT-R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사용하였을 때 신뢰도가 낮아지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향적 낙관성에 관한 연구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Ey et al., 2005). Ey 등(2005)은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LOT-R과 같이 단일차원 방식으로 YLOT(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를 개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성향적 낙관성이 아동에게는 단일차원으로 나타나고 청소년 때에 낙관성과 비관성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성인이 되면 독립차원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Robinson-Whelen et al., 1997; Ey et al., 2005; Herzberg, Glaesmer, & Hoyer, 2006). 표적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이고 14개 문항 중 12개 문항만이 낙관성을 측정하고 2개 문항은 가짜 문항(filler item)이다.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은 다시 6개의 긍정적 진술문항과 6개의 부정적 진술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채점되어 긍정적 진술문항에 대한 점수와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인 아동이라고 해석한다.

귀인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성향적 낙관성 측정도구와는 달리 아동을 위한 도구가 먼저 개발되었다. Seligman, Kaslow와 Tanenbaum(1978)은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CASQ(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는데(Seligman et al., 1984, 재인용) CASQ의 총 문항 수는 48문항으로 PMB(Permanent-bad event, 지속적인-나쁜 사건들)에 해당하는 항목 8문항, PMG(Permanent-good event, 지속적인-좋은 사건들)에 해당하는 8문항, PVB(Pervasive-bad event, 파급성의-나쁜 사건들)에 해당하는 항목 8문항, PVG(Pervasive-good event, 파급성의-좋은 사건들)에 해당하는 항목 8문항, PSB(Personal-bad event, 개인적인-나쁜 사건들)에 해당하는 항목 8문항, PSG(Personal-good event, 개인적인-좋은 사건들)에 해당하는 항목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48문항에 각 문항마다 질문과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이 있는 CASQ에 아동이 집중하여 반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Kaslow와 Nolen-Hoeksema(1991)는 척도를 재구성하여 CASQ-R(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Revised)을 개발하였다(Thompson, Kaslow, Weiss, & Nolen-Hoeksema, 1998, 재인용). CASQ-R은 CASQ를 축약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방식은 CASQ와 동일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CASQ-R이 소개되거나 사용된 문헌이 없고 CASQ를 박노용과 김혜성(1996)이 번안한 것을 그대로 또는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CASQ 개발이후, Seligman 등(1982)은 성인의 귀인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ASQ(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Seligman et al., 1982). 이 척도는 12가지 가상적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부정적 사건과 6개의 긍정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각각 3개씩의 성취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활사건과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생활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각 상황이 자신에게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쓰도록 한 뒤에 그 원인을 얼마나 내부적, 지속적, 전반적으로 평가하는지를 1에서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성향적 낙관성과 귀인적 낙관성에 대한 측정을 위해 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나 국내에서의 낙관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매우 미비한 상황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낙관성 측정 도구의 활용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이해와 신중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귀인적 낙관성 측정과 관련하여 CASQ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나 장옥란(200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CASQ-R이 개발 된지 17년이 되었고 해외에서는 사용되고(Fearing, Taska, & Lewis, 2002)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CASQ-R을 사용한 연구가 전혀 없이 선행연구를 통해 번안된 CASQ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ASQ의 개발 연도가 1982년임에도 그 개발 연도를 바르게 밝힌 논문이 찾기 힘들 뿐더러(윤지혜, 2007; 신경은, 2004) CASQ의 개발자는 Seligman과 그의 제자인 Kaslow와 Tanenbaum이고 개발연도는 1978년임에도 많은 연구(김순복, 2007; 윤차선, 2002; 장옥란, 2006)에서 참고문헌에 해당논문을 명시하지도 않은 채 Kaslow와 Tanenbaum이 1990년에 개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국내에서의 낙관성에 대한 연구가 성실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낙관성 측정 도구가 모두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들이어서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번안 과정에서의 언어문제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교문화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자들(Gergen, 1973; Pepitone & Triandis, 1987;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인간 경향성이 인간 보편의 경향성이 아니라 서구사회에 국한되는 특수한 경향일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낙관성과 인접 개념인 비현실적 낙관성이나 자기고양적 편향의 경우 미국이 일본대학생보다 더 낙관적이고 자기고양적 편향이 높음을 볼수 있다(이누미야 요시

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이것은 서양이 개인주의와 개별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경위 관계성과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양식으로 나타난다. 실제, YLOT 14문항 중 가짜문항 2문항을 제외한 12문항 중 10문항은 'I usually expect to have a good day', 'Each day I expect bad things to happen'과 같이 '나'가 주어로 'good'과 'bad'를 사용한 문장으로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이분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Watts(2004)는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틀에 맞춰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서구인들은 현실을 분리된 범주들로 나누고 이것 아니면 저것 혹은 흑과 백의 이분법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분법적인 것을 피하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민족원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는 천지인합일(天地人合一),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지는 자타일여(自他一如), 조상과 후손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생사일여(生死一如), 사는 땅과 사람이 둘이 아니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 등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최동환, 2004). 즉, 'good'과 'bad'를 통한 직접적인 이분법적 표현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긍정과 부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로, 아동들이 학교를 비롯한 사회생활 중에 접하게 되는 외부환경과 관련된 표현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문화와 밀접한 문항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귀인적 낙관성에 있어서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낙관적으로 변화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나(Seligman, 1995) 이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윤차선, 2002; 장옥란, 2006). 다음으로 성향적 낙관성 측정과 관련하여 LOT와 LOT-R은 대학생을 표적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성인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나(Scheier, Carver, 1985; Scheier, Carver, & Bridges, 1994) 국내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LOT와 LOT-R을 사용한 연구가 많았고(권영애, 2007; 권혜경, 2004; 신건호, 2005) 심지어 김동현(2006)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LOT-R을 사용하였다. 물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성향적 낙관성 척도가 없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청소년에게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국내 연구를 위한 타당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YLOT와 아동의 귀인적 낙관성 측정 도구인 CASQ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게 LOT-R을 사용한 것은 척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YLOT를 사용하여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한 연구는 김주용과 이지연(2007)의 연구가 유일한 실정이다. 또한 LOT-R이 단일차원에서 낙관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반면 성향적 낙관성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차원인지 독립차원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경험적 증거 없이, 연구자 임의대로 낙관성의 단일 측정치를 산출하였다(김택호, 김재환, 2004; 신정원, 2002; 조하나, 2002). 뿐만 아니라, 독립차원에서 낙관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E-LOT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은상(2004)과 윤지혜(2007)의 연구에서는 LOT-R을 사용하여 부정적 진술문항은 제외하고 긍정적 진술문항에 대한 반응만 채점하여 낙관성과 비관성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도 낙관성 측정 도구의 활용에 있어 이해가 깊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고 해외에서 구성된 YLOT가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타당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성향적 낙관성이 단일차원인지 독립차원인지의 논의도 정리되지 않았고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의 차원은 개발된 척도와 연구가 없기에 오히려 논의조차 하지 못해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문화와 정서에 적합하게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국내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에 관한 후속연구를 촉진하고, 나아가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이 단일차원인지 독립차원인지 확인하고자 하며,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자가 진단도구나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 후 사전사후변화 측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예비연구 1

인천·경기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과 6학년 아동에 대해 각 학년별 30명씩 60명을 대상으로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항을 만들어 보게 하였다. 수집된 문항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문항들을 토대로 연구자가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문항을 정리하였다. 문항의 정리과정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 생각대로 되는 건 별로 없다.’, ‘친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교나 사회 등의 외부환경과 관련된 것을 표현하는 문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예비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고 예비문항으로 선정하기 위한 검토 과정은 3차로 이루어졌다. 1차는 상담전공과 측정전공 교수 2명으로부터 문항의 구성방법과 내용에 대해 검토를 받고 2차는 교육학전공 박사과정 12명에 의해 구성개념의 적합성과 표현의 적합성을 검토 받은 후 3차는 1,2차에 의해 수정 보완된 문항에 대해 상담전공과 측정전공교수 2명으로부터 예비문항으로서의 적합성을 최종 검토 받았다. 내용 타당화 과정을 거친 후 3학년과 5학년 아동에 대해 각 학년별 30명씩 60명을 대상으로 예비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해도(readability)를 검토하

고 안면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18문항(가짜문항 4개 포함)을 예비척도로 확정지었다.

2. 예비연구 2

가. 연구대상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1, 2학년 아동은 문항에 대한 독해력과 이해도가 낮아 3-6학년 아동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척도의 설문을 위해 인천·경기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아동에 대해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 문항에 완전히 응답하지 않은 24명을 제외하고 236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남학생은 123명(52%), 여학생은 113명(48%)이었고 3학년은 55명(23%), 4학년은 61명(27%), 5학년은 60명(25%), 6학년은 60명(25%)이었다.

나. 연구절차

예비연구 2에서는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의 문항을 확정하기 위해 검사 예비문항들을 대상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문항분석은 첫째,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보았는데 문항별 평균은 2.67-3.40 표준편차 값은 7.46-9.98의 분포를 보여 대체로 안정된 값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문항-총점 간 상관을 구하여 상관이 낮게 나오거나 역상관이 있는 문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문항-총점 간 상관이 .5이상의 문항 변별력이 높은 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개별 문항을 뺀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과 개별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내적 일치도 증가를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넷째, 가짜 문항은 문항-총점 간 상관에서 .34와 .59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 두 문항을 제외시키고 -.12, -.13으로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보인 두 문항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로서 가짜문항 2문항을 포함하여 최종 12문항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문항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였다.

<표 1> 문항분석 자료

문항 번호	문항내용	평균	표준 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시 a	삭제 문항
filer1	나는 활동적인 것이 좋다.			.34		삭제
성2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금방 좋아질 것 같다.	2.67	.800	.44	.843	삭제
성3	내 생각대로 되는 건 별로 없다.	2.74	.830	.56	.835	
성4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주로 좋은 쪽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 생각한다.	2.87	.810	.52	.838	삭제
filer2	나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12		
성6	좋은 일이 생기면 좀 있다가 꼭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2.74	.983	.59	.835	
filer3	게임을 좋아한다.			-.13		
성8	친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3.18	.784	.59	.833	
성9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3.18	.753	.53	.837	삭제
성10	전체적으로 나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편이다	3.12	.797	.59	.833	
성11	오늘은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3.40	.746	.51	.838	삭제
filer4	요즘 내 생활은 재미있다.			.59		삭제
성13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2.99	.812	.52	.838	
성14	나에게는 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2.93	.858	.69	.826	
성15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2.95	.864	.55	.837	
성16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다.	2.67	.832	.67	.827	
성17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3.33	.762	.60	.833	
성18	내게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3.00	.851	.69	.825	

<표 2> 최종 성향적 낙관성 척도

문항번호	문항	비고
1	나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가짜문항
2	전체적으로 나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편이다.	
3	내 생각대로 되는 건 별로 없다.	역산문항
4	내게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5	나에게는 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역산문항
6	친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7	좋은 일이 생기면 좀 있다가 꼭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역산문항
8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9	게임을 좋아한다.	가짜문항
10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역산문항
11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다.	
12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역산문항

3. 본 연구

가. 연구대상

인천·경기소재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아동에 대해 360명을 대상으로 준거타당도 확인을 위한 설문을 하였다. 이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 문항에 완전히 응답하지 않은 15명을 제외하고 345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6명(51%), 여학생은 169명(49%)이었고 3학년은 83명(24%), 4학년은 86명(25%), 5학년은 87명(25%), 6학년은 89명(26%)이었다.

나. 연구절차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Coopersmith(1967)의 SE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김귀인, 장도현(198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척도와 Lubin, Grime, Whitlock(1997)의 MAACL-R6을 조한익(1999)이 번안한 주관적 행복감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개발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1), 자아존중감(2), 주관적 행복감(3)으로 하고 척도의 조합은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A set(1-2-3)와 B set(3-2-1)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 시행시간은 약 15분이었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가 단일차원인지 독립차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타당화 검증을 수행하였고 낙관성을 선행 변인으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인과관계의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다. 측정도구

1) 개발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the Children's Life Orientation Test : CLOT)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표적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1,2학년 아동은 문항에 대한 독해력과 이해도가 낮아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으로 하였고 총 12문항이다. 2개 문항은 피검자가 검사의 종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짜문항이고 10개 문항이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그 중 5개 문항은 긍정적 진술 문항이고 5개 문항은 부정적 진술 문항이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Likert 척도 상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 SEI)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1967)의 Self-Esteem Inventory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김귀인, 장도현(1984)이 번안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의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4단계 Likert 방식의 척도로 측정하였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귀인, 장도현(1984)의 연구에서 밝힌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5$ 이었다.

3)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 SH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Lubin, Grimes, Whitlock(1997)가 개발한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Revised 6(MAACL-R6)을 조한익(1999)이 번안하여 국내 예비연구를 실시한 후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척도들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총 78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척도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는데 긍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문항은 '활기찬', '힘이 솟는', '재미있는', '안심하는' 등과 같은 형용사들을 포함하고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문항은 '두려운', '외로운', '싫증나는', '고통스러운' 등과 같은 형용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설문응답자들이 이들 제시된 문항 중에서 응답자 자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형용사들을 모두 선택하여 ○표를 하도록 하였다. 김경순(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검사도구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alpha=.77$ 과 Cronbach $\alpha=.58$ 였고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척도의 신뢰도는 긍정적 정서가 Cronbach $\alpha=.72$, 부정적 정서가 Cronbach $\alpha=.64$ 이었으며 주관적 행복감 전체 Cronbach $\alpha=.73$ 이었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성향적 낙관성의 요인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요인구조가 단일차원인지 독립차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체화된 구인과 구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된 측정변수간의 가정된 관계구조가 얼마나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인 단일요인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쟁모형인 2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인 단일요인 모형(Ey et al., 2005)은 낙관성과

<표 3>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45)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60.21	35	.005	.994	.996	.055
경쟁모형	66.22	34	.015	.756	.749	.110

<표 4> 모형비교를 위한 χ^2 차이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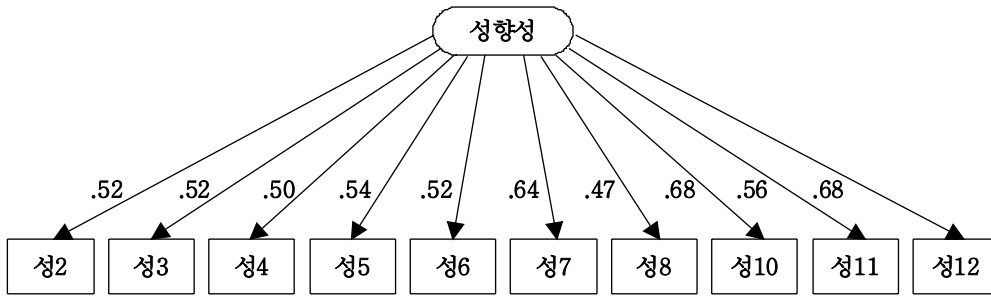
	$\Delta\chi^2$	Δdf	결정
연구모형 vs 경쟁모형	6.01	1	기각(.01수준)

비관성이 단일차원이라는 전제하에 부정적 진술문항을 역 채점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경쟁모형인 2요인 모형(Mehrabian et al., 1997)은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차원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차원으로서 낙관성과 비관성을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내재적 관계에 있으므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χ^2 차이검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에 대한 χ^2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χ^2 값은 60.21과 54.20으로 두 모형은 모두 기각되어 두 모형은 차이가 있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χ^2 검증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2000). 여기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는 절대적합도 지수(Goodness-of-fit-measure)로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형임을 의미하는데 .9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부적합을 측정하는 절대적합도 지수의 일종으로 .05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며, .08이하에서는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Browne & Cudeck, 1993), 최근에는 .06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경쟁모형 2요인모형의 TLI는 .995, CFI는 .997이므로 이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RMSEA는 .11(90% 신뢰구간 .084 - .142)로서 모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관성과 비관성 간의 상관이 -.63으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여 두 하위요인이 독립적인 요인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연구모형 단일요인모형의 TLI는 .994, CFI는 .996이고 RMSEA는 .055(90% 신뢰구간 .030 - .079)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가설화된 구조 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그림 1에서 보듯이 문항들의 표준화계수는 .27에서 .33까지의 비교적 안정적인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변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최종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의 타당도 분석

가. 상관분석 :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과 관련이 깊은 다른 척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박현숙(2002)의 연구에 의하면, 낙관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은 높은 상관이 있고, Scheier와 Carver(1992)는 낙관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되는 주관적 행복감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Lucas, Diener와 Suh(1996)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주관적 행복감도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검사 실시 시에 자아존중감 척도와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함께 실시하여 이 두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낙관성과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은 <표 5>와 같다. 낙관성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과 모두 유의한 상관($p < .01$)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낙관성과 자아존중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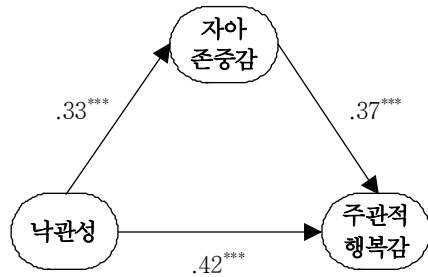
<표 5> 낙관성과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

	낙관성	자아존중감	긍정정서	부정정서	주관적 행복감 전체
낙관성	1				
자아존중감	.36**	1			
긍정정서	.32**	.25**	1		
부정정서	-.27**	-.21**	-.31**	1	
주관적 행복감 전체	.35**	.34**	.45**	-.32**	1

** $p < .01$, * $p < .05$

.36, 주관적 행복감이 .35로 정적 상관을 보여 낙관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관적 행복감 하위 변인인 부정정서와는 -.27로 부적상관을 보여 낙관성이 높을수록 부정정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 할 수 있다.

나. 구조모형 검증 : 성향적 낙관성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과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이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Peterson, 1999; Scheier & Carver, 1992; Creed, et, al., 2002)를 통해 낙관적인 사람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rgyle(1987)은 자아존중감을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보았으며 김현정과 손정락(2006)은 완벽주의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변인으로 낙관성을 가정하고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2와 같은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검증 결과,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그림 2] 낙관성,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인과모형

<표 6>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45)

적합도 지수	χ^2	df	GFI	TLI	CFI	RMSEA
검증모형	56.354	17	.948	.974	.965	.062

이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 TLI, CFI 지수는 모두 .90이상의 양호한 값을 보였다. 그리고 RMSEA 값은 .062의 양호한 값을 보여 본 연구에서 상정한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합도 검증 및 적합도 지수를 통해 낙관성은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며 또한 자아존중감은 낙관성이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는데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문화와 정서에 적합하게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국내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에 관한 연구의 증진에 밑거름이 되며 나아가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이 단일차원인지 독립차원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낙관성,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의 구조모형을 검증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었기에 여러 연구에서(권영애, 2007; 권혜경, 2004; 신진호, 2005; 김동현, 2006)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을 표적대상으로 개발된 LOT 또는 LOT-R을 사용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척도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LOT와 LOT-R은 성인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기에 성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이러한 사항을 연구자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나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어쩔 수 없이 아동을 대상으로 LOT, LOT-R을 사용하였을 거라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에 관한 연구가 아동의 낙관성 척도가 개발된 귀인적 낙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만 보아도 성향적 낙관성의 척도 개발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척도인 것이며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한 틀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로 인해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이 단일차원인지 독립차원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해외에서 성향적 낙관성이 단일차원인지 독립차원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성향적 낙관성의 차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성향적 낙관성을 독립차원으로 보고 개발된 E-LOT가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성향적 낙관성을 독립차원으로 생각하는 연구자는 LOT-R의 사용 시 긍정적 진술문항은 낙관성을 부정적 진술문항은 비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성인의 성향적 낙관성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의 차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일요인에 대한 주장에 따라 낙관성과 비관성을 구분하지 않고 부정적 진술문항에 대해 역 채점 후 합산을 통해 낙관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의 차원에 대한 것은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측정도구개발의 노력이 없고 이에 따라 논의도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차원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차원이 독립적이기보다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cheier와 Carver(1985)가 낙관성과 비관성 두 요인의 상호상관이 -.64로 높기 때문에 두 요인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문항 어휘(item wording)에서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Mehrabian와 Ljunggren(1997)이 LOT-R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관성 요인 하나만을 확인하였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향적 낙관성이 아동에게는 단일차원으로 나타나고 청소년 때에 낙관성과 비관성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성인이 되면 독립차원으로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Robinson-Whelen, et al., 1997; Ey, et al., 2005; Herzberg, et al., 2006)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은 단일 측정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비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차원에 대한 논의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본 연구가 인천·경기지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한계점도 있으므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낙관성,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낙관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낙관성은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낙관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낙관적인 사람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의 차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향적 낙관성에 있어 차원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의 차원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 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척도가 개발되었기에 낙관성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에게 의해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의 차원에 관한 논의가 되어진다면, 낙관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성인의 낙관성은 독립차원이라는 주장이 강하고 아동의 낙관성은 해외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단일차원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단일차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기지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청소년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논의는 성인과 아동의 연구에 비해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적 낙관성의 차원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가운데 성인

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 척도를 통해 청소년의 낙관성을 측정하고 있다. 입시와 사회진출에 대한 스트레스에 처한 청소년에 대해 낙관성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비롯한 심리적 적응, 학교 적응, 우울,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진로결정 등 청소년에게 있어 다양한 변인에 대해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에게 있어 성향적 낙관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성향적 낙관성 척도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적 낙관성의 차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셋째, 낙관성 척도에서 성향적, 귀인적 낙관성 척도가 함께 개발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일단 본 연구에서 성향성 낙관성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귀인적 낙관성에 대한 구인의 확인과 측정노력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척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낙관성 증진 상담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척도 개발을 위한 척도개발의 절차를 밟았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향적 낙관성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화를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와 주관적행복감 척도를 함께 실시하여 이 두 개념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향적 낙관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변인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 성향적 낙관성이 아동의 양육환경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고 하는 귀인적 낙관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권영애(2007).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사회적 기술 및 낙관성이 청소년의 외톨이 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권혜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김경순(2006).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학생생활연구, 27(1), 145-176
- 김귀인, 장도현(1984). 아동용 자아존중검사. 행동과학연구소, 10(2).
- 김동현(2006). 아동의 낙관성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성수(2006).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연구, 9, 145-170.
- 김순복(2007).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주용, 이지연(2007).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115-136.
- 김택호, 김재환(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현정, 손정락(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박현숙(2002). 중년여성의 우울,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및 낙관성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3), 352-362.
- 신건호(2005). 청소년의 자아개념, 불안, 희망과 낙관성이 종교정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종교교육학연구, 20, 147-166.
- 신경은(2004). 어머니의 낙관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신정원(2002). 성향적 낙관주의와 기분 상태가 만성 동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신현숙(2006). 낙관주의, 비관주의, 방어적 비관주의는 입시 스트레스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청소년학연구, 13(1), 107-136.
- 신현숙, 류정희, 이명자(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 1-요인 모형과 2-요인모형의 검증. 한국

심리학회지:학교, 2(1), 79-97.

유은상(2004). 낙관주의 및 귀인방식과 건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윤지혜(2007). 낙관성이 우울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윤차선(2002). 낙관성 훈련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연구: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1, 183-201.

장옥란(2006). 낙관성 증진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낙관성,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조하나(2002).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호/적대상황에서의 대인관계도식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조한익(1999). 감성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최동환(2004). 삼일신고. 서울 : 지혜의 나무

홍세희(2000).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 3차 workshop.

Argyle, M.(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Carver, C. S. & Gaines, J. G.(1987). Optimism, pessimism, and postpartum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ch*, 11, 449-462.

Chang, E. C.(1998). Dispositional optimism and primary and secondary appraisal of a stressor: Controlling for confounding influences and relations to coping and psychological phys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09-1120.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hip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3), 433-440.

Chang, E. C. & Sanna, L. J.(2001). Optimism, pessimism, and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in middle-aged adults: a test of a cognitive-affective model of psychological adjustment. *Psychology and Aging*, 16(3), 524-531.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Co.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1), 42-61.
- Ey, S., Hadley, W., Allen, D., Palmer, S., Klosky, J., Deptula, D., Thomas, J., & Cohen, R.(2005). A new measure of children's optimism and pessimism: 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46*, 548-558.
- Feiring, C., Taska, L., & Lewis M.(2002). Adjustment following sexual abuse discovery: the role of shame and attributional style. *Development Psychology, 38*(1), 79-92.
- Gergen, K. J. (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Herzberg, P.Y., Glaesmer, H., & Hoyer, J.(2006). Separating optimism and pessimism: A robust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 *Psychological Assessment, 18*, 433 - 438.
- Hu, L.,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aslow, N. J., & Nolen-Hoeksema, S.(1991).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Emory University, Atlanta, GA.
- Marshall, G. N., Wortman, C. B. , Kusulas, J. W., Hervig, L. K., & Vickers, Jr., R. R.(1992). Distinguishing optimism and pessimism: Relations to fundamental dimensions of mood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67-1074.
- Merhrabian, A., & Ljunggren, E.(1997). Dimensionality and content of optimism-pessimism analyzed in terms of the PAD temperament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5), 729-737.
- Mroczek, D. K., Shapiro, A., III, Aldwin, C. M., Ozer, D. J., & Bosse, R.(199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optimism and pessimism in older men: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Health Psychology, 12*(5), 406-409.
- Lubin, B., Grimes, M., & Whitlock, R. V. (1997). The MAACL-R6 with an adult clinical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 5, 491-495.
- Lucas, R. E., Diener, E., & Suh, E.(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Peterson, C.(1988). Explanatory style as a risk factor for illn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117-130.

- Peterson, C.(1999). Personal control and well-being. In D. Kahneman & E. Diener & N. Schwartz(Eds.), *Well-being: the Foundation of Hedonic Psychology*(pp. 288-301). New York, NY, US: Russell Sage Foundation.
- Robinson-Whelen, S., Kim, C., MacCallum, R. C., & Kiecolt-Glaser, J. K.(1997).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pessimism in older adults: Is it more important to be optimistic or not to be pessimist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345-1353.
- Scheier, M. F. & Carver, C. S.(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 Carver, C. S.(1993). On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e benefits of being optimistic.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 26-30.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eligman, M. E. P.(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Simon & Schuster. 박노용, 김혜성 역 (1996). 낙관성 훈련 상·하, 서울: 오리진
- Seligman, M. E. P.(1995). *The optimistic child*. New York: Harper/Perennial.
- Seligman, M. E. P., Kaslow, N. J., & Tanenbaum, R. L.(1978). *The KASTAN-R: a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eligman, M. E. P., Peterson, C., Kaslow, N. J., Tanenbaum, R. L., Alloy, L. B., & Abramson, L. Y.(1984).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35-238.
- Seligman, M. E. P.,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 Metalsky, G. I.(1982).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287-299.
- Smith, T. W., Pope, M. K., Rhodewalt, F., & Poult, J. L.(1989). Optimism, neuroticism, coping, and symptom report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640-648.
- Symister, P., & Friend, R.(2003).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atic support on optimism and depression in chronic illness: a prospective study evaluating self-esteem

as a mediator. *Health Psychology*, 22(2), 123-129.

Thompson, M., Kaslow, N. J., Weiss, B., & Nolen-Hoeksema, S.(1998).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Revised: Psychometric Examin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0(2), 166-170.

Watts, A. (2004). 동양과 서양의 정신치료[Psychotherapy, East and West]. (강석현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75년에 출판).

* 논문접수 2008년 8월 1일 / 1차 심사 2008년 8월 25일 / 게재승인 2008년 9월 15일

* 김주용: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신대 상담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인천대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있다.

* e-mail: roktem@hanmail.net

* 이지연: 이대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 교육학과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대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이타주의자들의 심리적 특성', '대상관계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 e-mail: becoming@inchehon.ac.kr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ispositional Optimism Scale for Children

Ju-yong Kim* · Jee-Y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dispositional optimism scale for children and to find evidence for the construction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scale. Based on the extensive review of literature and related studies, a theory for the dispositional optimism scale was developed. Then, a questionnaire, exam and sub-exam was developed for primary students of the Gyeonggi and Incheon educational school boards. After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surveys the dispositional optimism scale was developed, which consists of 1 factor and 12 questions. For the criterion-related verification,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was analyzed. Moderate levels of positive correlations among dispositional optimism,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provided evidence that suggested that the dispositional optimism scale for children developed in this study had criterion-related validity. Finall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 was adop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ere direct or indirect relationships among these three variables. Results showed that dispositional optimism functioned as a predictor of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that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 of dispositional optimism to predict subjective happiness.

Key words: Dispositional optimism,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 Graduate School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Incheon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Incheon